



위성곤 1호 행정명령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

확대간부회의서 지시 “도지사 직속… 지표 실시간 점검”
도정 업무 방식 개편… 1페이지짜리 핵심 보고 표준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도정 첫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지시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1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 지사는 “도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가혹한 3고의 파고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며 “그 동안의 지표 관리는 사후약방문이였다.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책을 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민생 현안을 진두지휘하겠다.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 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 지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청 역량을 상황실 운영에 집중할 것과 각 실국이 관리하는 핵심 지표들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위 지사는 민선 9기 업무 방식 개편도 주문했다. 위 지사는 “회의는 단순히 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라며 “주요 보고는 문제의 본질과 대안, 결정 사항이 분명한 1페이지 핵심 보고 원칙으로 표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앞으로 보고서에 ▷현재 상황 ▷핵심 문제 ▷대안 ▷실·국 의견 ▷도지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도민에게 미칠 영향 ▷향후 일정 등 7가지 핵심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위 지사는 “‘검토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통용하지 않겠다”며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완료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한과 담당 책임자를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 지사는 민생, 재난, 갈등, 재정, 언론, 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정 전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할 것과 특정 실국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즉시 요구해 개최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 간부회의는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1호 행정명령 발동 이후에는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이 각각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해안가 승마체험 2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내년 ‘제8회 섬의 날’ 기념행사 제주 개최 확정

행정안전부 “다양한 숙박·편의시설 등 최적화된 기반 시설 두루 갖춰”

제주도가 내년 제8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 개최 예정인 ‘제8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8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섬의 날 전후로 섬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에는 섬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문화·예

술 공연, 체험 행사, 학술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앞서 전남 목포·신안, 경남 통영,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충남 보령, 전남 완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전

남 여수에서 열린다.

행안부는 “이번 개최지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모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됐다”며 “제주도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과 다양한 숙박·편의시설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제주계정 영향은?

지특회계 4개→5개로… 특별계정, 제주·세종·초광역 3개
국회 예산정책처 “초광역계정에 상당한 규모 편성 예상”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제주 계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7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고, 특히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추가됐다.

현행 지특회계의 편성구조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4개 계정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이뤄졌다. 당초 2005~200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은 지역혁신산업 계정과 지역개발사업 계정 2개였는데, 2007년부터 제주계정이 추가됐고, 2015년 세종계정이 만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각각 제주특별자치

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제주 계정 예산은 2021년 2111억, 2022년 2704억, 2023년 2770억, 2024년 2943억, 2025년 3165억, 2026년 5541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내년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특회계 계정 편성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주 계정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별계정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초광역특별계정은 초광역권 단위 사업을 통합지원·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특별계정으로, 5극 3특 전략의 핵심 과제인 초광역 경제권 조성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편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특회계 편성체계는 5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계정 편성구조가 복잡해졌으며 제주, 세종에 이어 특별계정이 3개로 늘어난 반면 강원, 전북의 특별계정 신설 요구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국힘 고기철, 서귀포 보궐선거 무효소송 제기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고기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위원장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에는 국회의원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3 지방선거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이정엽, 현기종 전 의원과 원화자 전 의원이 함께했다.

고 전 위원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회복 운동은 지금도 서울 울림광공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서 690건의 선거소청을 제기했고 제주에서도 도의원 후보 2명이 개별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족보편찬 안내문

존경하는 제주부씨 종친 여러분,
우리 제주부씨 대종회는 소중한 우리의 혈통과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족보수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족보는 신세대 후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한문 혼용으로 편찬되며, 기 구축된 인터넷족보도 함께 업데이트되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는 한 문종의 혈통과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이 수록된 아주 소중한 책임입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족보등재신청서 견본 등을 잘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족보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계파중화·지회 또는 족보편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편찬 참여 안내

1 등재 대상자 제주부씨 후손

2 수단 등재 접수 기간 2026년 10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3 접수방법 ① 각 계파 및 지회 접수 ② 우편접수 : 제주시 중앙로186-1 삼성회관 3층 부씨대종회
③ 팩스접수 : 064-751-0912 ④ 이메일접수 : se9124@naver.com
⑤ 문자 및 카카오톡(사무국장 010-9840-7671) ⑥ 방문접수(제주부씨대종회)

4 신청서 서식 제주부씨대종회 홈페이지 참조

5 족보 편찬위원 위 원 장 : 부광훈(대종회장)
자문위원 : 부만근 고문, 부봉하 고문, 부규진 고문, 부평국 고문
위 원 : 각공계종친회장 부봉오, 열공계종친회장 부윤택, 총무 부재호
협공계종친회장 부창순, 총무 부준배, 벽공계종친회장 부송도, 총무 부상돈,
홍공계종친회장 부상복, 총무 부경조, 재경계종친회장 부규욱, 총무부회장 부중환,
재부산계종친회장 부형식, 총무 부두봉, 재광주·전남계종친회장 부규홍, 총무 부진우,
부영인 부회장(서귀포시), 부석규 총무이사, 부군천 사업이사, 부태준 홍보이사
간 사 : 부관봉 재무이사

6 문의처 제주부씨대종회 : ☎ 064-751-0911 ※ 신공계 후손은 대종회로 연락 바랍니다.

제주부씨 대종회 회장 부 광 훈

2026년도 사단법인 서귀포시 제주어보전회 주최 제1회 서귀포시 제주어 문예 작품 공모

- 주 제 제주어 문예와 생활 및 자유주제
- 공모 부문 제주어로 쓴 시(동시), 수필
○ 시 - 유치부(동시), 학생부: 초등생(동시)/중·고생, 일반부
○ 수필(A4용지, 11pt로 작성)
- 학생부: 중·고생(2~2.5매)), 일반부(3~3.5매)
- 응모 방법 E-mail 제출(ejueo-seogwipo@naver.com)
○ 신청서: 위의 메일로 작품 응모하시면 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공모 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2026년 10월 23일(금)
- 응모 자격 제주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누구나(지역 불문)
- 심사 및 발표·시상식 도내 유수 작가/심사 후 개별 통지
- 시 상 총 상금 460만원 및 상장
- 기 타 ○ 응모작은 미발표작으로, AI(챗GPT) 사용하지 않은 순수 작품이어야 함
○ 타인의 작품 도용이나 표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 당선작은 본 협회에서 책자발간 및 전시, 제주어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 문 의 010-2640-8588, 010-2696-7475

사단법인 서귀포시 제주어보전회

* 이 사업은 제주어보전 전승행사로서 서귀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시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